

교회 목표

신앙인 예배
친구인교인 양성
민족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주간 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골로새서 1:21)

대한예수교장로회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2004 충현교회 THE WEEKLY CHONG 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노광현 편집국장: 이형수

다움주일 설교

새로운 것들

“... 5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계 21:1-5)



김성관 목사

오늘 본문 말씀은 장차 있을 새 하늘과 새 땅에 관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입니다. 지금 있는 이 땅에서는 신자들이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며 살지만,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을 것입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5절b). 이것은 이 세상 대통령의 말이 아닙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 곧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의 일부뿐이나 가장 악한 것들을 새롭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라고 강조하시면서,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새로운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새로운 장난감, 새로운 옷, 새로운 컴퓨터, 새로 나온 텔레비전, 새로운 모델의 차, 화려한 새 집, 새로운 비행기 등등, 새로운 것이면 다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에게 주실 새로운 것들은 이 세상의 새로운 것들과 비교할 수 없이 놀랍고 그 놀라운 것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는 이 말씀이 놀랍지 않습니까?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은 지금도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고 계십니다. “그러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고후 5:17). 본래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나 첫 사람 아담과 하와와 범죄 이후 흠으로 돌아가야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인류를 만드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다시 태어난 자들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된 자신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갈 2:20).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의 피로 인하여 새 생명을 받은 사람이며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인과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엣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골 3:1). 그리스도인은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우편에 앉게 될 사람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새 피조물인지요! 신약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사리인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지를 계시하고 있습니다.

새롭고 산 길

또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도 산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가서 떡과 잔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히 10:19-20). 신자들이 걷는 길은 새로운 길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도 날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며 애고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능동하신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새로운 길로 나아갈 수 있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 14:6). 옛 길은 죄와 율법과 사망의 길이었습니다. 인간의 노력에 근거한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길, 새로운 생명은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요일 5:12).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도 세상의 복을 약속하는 넓고도 오래된 옛 길을 더 좋아합니다. 옛 길이 편하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거룩한 새 길로 행하려는 사람들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새 길은 힘들고 어려운 길이기 때문입니다.

새 계명

우리 앞에 열려져 있는 새롭고 산 길은 ‘새 계명’과 함께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니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요 13:34). 이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다른 사람들도 알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까? 그것은 복음입니다. 물론 아무에게도 물질적으로 사랑을 베푸는 것도 필요하지만,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영적인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참된 사랑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영원히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람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는 약품이나 돈은 그렇지 못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베푼다면, 그들은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나 새로운 피조물이 되며 새롭게 된 만물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방식도 그것이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요일 4:10). 그러므로 참된 사랑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깨닫고 전하는 사람들만이 “너희 원수를 사랑하여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마 5:44)라는 말씀을 바르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참으로 깨달은 사람만이 사람들의 영혼을 사랑할 수 있고, 사람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들만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참으로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새 이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장래에는 우리들에게 각각 새 이름을 주실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물을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에게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계 2:17). 아브라함과 야곱, 바울과 베드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새 이름을 받았습니. 우리도 천국에 가면 새 이름을 받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을 찬양하는 그속에 관한 새 찬송을 듣게 될 것입니다(예 5:9-10 참조).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랑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천국에서는 세상적인 복을 생각할 수도 없고 그러워지도 않을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천국에서 새 노래를 부르게 되는 날 수많은 천군 천사들과 옛 성도들도 우리와 함께 찬양하고 경배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포함하여 만물을 새롭게 하십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거서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매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계 21:1-4). 하나님은 완전히 새롭게 된 땅에서 우리와 함께 사시 것입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없더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취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시니라”(계 22:3). 또한 그 날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하니 내가 보니 깨끗하고 햇빛이 없더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취시니와 저희가 세례를 볼 왕 노릇하시리로다”(계 22:4-5). 여러분,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 것들이 참으로 놀랍고 위대하지 않습니까!

어린 양을 따라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만들고 계시는 새로운 모든 것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 여러분의 소망입니까? 혹시 마음을 포기하거나 믿음에서 떨어쳐져 가는 일이 없도록 하시요. 여러분에게 있는 믿음을 단단히 붙잡도록 하시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따라다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께 완전히 새로운 생명을 주실 것이며,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2004년을 시작하면서, 참 신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새로운 것들을 위하여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NEW THINGS

... ⁽⁵⁾ And He who sits on the throne said, "Behold, I am making all things new."

And He said, "Write, for these words are faithful and true."

(Revelation 21:1~5)

Today's Bible verses are a wonderful revelation from God concerning the new world. In this world, all believers experience suffering, but in the new world, not one believer will suffer death, mourning, crying, or pain. "He who sits on the throne," not an earthly boss, president, or king, but the heavenly Creator God said, "Behold, I am making all things new." God did not suggest most things, or even the weakest points. He specifically asked John to write "all things new" because that is what is faithful and true. Do you believe His word? Everyone, I think, loves new things. New toys, new clothes, brand new computers, new televisions, modern cars, luxurious new homes, and new airplanes excite us. God provides us with new things that are even more exciting, not even comparable, than these things. Do His new makings excite you?

God is making new creatures, "Therefore if anyone is in Christ, he is a new creature; the old things passed away; behold, new things have come" (2 Cor. 5:17). Humans are born in the image of God, but after our ancestor's sin, they have to return to dust. The consequence of sin is death, but God has made a new human creature that we call a Christian. Christians are born again under His grace. Paul explains, "I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and it is no longer I who live, but Christ lives in me; and the life which I now live in the flesh I live by faith in the Son of God, who loved me and gave Himself up for me" (Gal. 2:20). Through the blood of Jesus Christ, those who believe in Him receive new life. The Christian is risen with Christ, "Therefore if you have been raised up with Christ, keep seeking the things above, where Christ is, seated at the right hand of God" (Col. 3:1). Because of the Son of God, believers are going to be sitting with Him by the right hand of God. That is an amazing new thing! Indeed, the entire New Testament reveals how the love of God, Christ Jesus, makes all things new.

Christians have a new and living way to God, "Therefore, brethren, since we have confidence to enter the holy place by the blood of Jesus, by a new and living way which He inaugurated for us through the veil, that is, His flesh" (Heb. 10:19~20). Believers have a new way to walk. Sure, we struggle and juggle with the difficulties of daily living, but we have direct access to Almighty God through Christ. He opens the door, so that we can walk a new way and live a new life. Jesus said,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but through Me" (Jn. 14:6). The old way was the way of sin, the law, and death. It was based on our own effort. The new way, the new life, is based on the grace of God. The Bible clearly says, "He who has the Son has the life; he who does not have the Son of God does not have the life" (1 Jn. 5:12). Most people still want to go the old, wide, and earthly blessing way because it is comfortable. Few people go the new, eternal, and holy way because it is uncomfortable.

Our new and living way comes with a new commandment. "A new commandment I give to you, that you love one another, even as I have loved you, that you also love one another" (Jn. 13:34). If we love one another, then others will know that we are Jesus' disciples. What is

the love of Jesus Christ? It is the gospel. We are to love our neighbors physically and financially, but most important is to love them spiritually by proclaiming the gospel of Jesus Christ. Real love is about the gospel because it is eternal. The gospel of Jesus Christ makes new things happen, unlike medicine and money. If you give others the Gospel of Christ, then they come out from the power of darkness to the power of new things. Jesus loved the sinner, "In this is love, not that we loved God, but that He loved us and sent His Son to be the propitiation for our sins" (1 Jn. 4:10). If you know Christ, then you can really "love your enemies and pray for those who persecute you" (Mt. 5:44). If you really understand the gospel of Christ, loving and praying for your enemies is no problem because you are able to love their souls.

God not only gave us the new name of Jesus Christ, but will one day give us individual new names, "He who has an ear, let him hear what the Spirit says to the churches. To him who overcomes, to him I will give some of the hidden manna, and I will give him a white stone, and a new name written on the stone which no one knows but he who receives it" (Rev. 2:17). God gave Abraham, Jacob, Paul, and Peter new names, and when we go to heaven we'll find a new name. We will also hear a new song about redemption that praises the Lamb of God (see Rev. 5:9~10). In all this, we cannot be proud of ourselves, we cannot respect earthly things, only Jesus. So many angels and saints of old will join in praise and worship as we sing our new song.

God is making all things new, including the heavens and earth, "Then I saw a new heaven and a new earth; for the first heaven and the first earth passed away, and there is no longer any sea. And I saw the holy city, new Jerusalem, coming down out of heaven from God, made ready as a bride adorned for her husband. And I heard a loud voice from the throne, saying, 'Behold, the tabernacle of God is among men, and He will dwell among them, and they shall be His people, and God Himself will be among them, and He will wipe away every tear from their eyes; and there will no longer be any death; there will no longer be any mourning, or crying, or pain; the first things have passed away.'" God will live with us in a completely new earth, "And the city has no need of the sun or of the moon to shine on it, for the glory of God has illumined it, and its lamp is the Lamb" (v. 23). Believers will "see His face, and His name will be on their foreheads. And there will no longer be any night; and they will not have need of the light of a lamp nor the light of the sun, because the Lord God will illumine them; and they will reign forever and ever" (Rev. 22:4&5). God's new things are great!

My dear friend, do you believe in all the new things God is making? Is the Lamb of God your hope? Do not give up or drop out, just hold tight to your faith. Deny yourself, take your cross, and follow the Lamb of God. God will make a completely new life for you, and you will receive His blessings. Starting this 2004, become a real believer and live for the new things. Amen. 

장로 칼럼

장로 칼럼

늘 예배를 준비하는 교회



전홍렬 (장로, 예배위원장)

매 주일 정해 전 시간에 사회자가 등단하여 <목도하심으로 주일>○부 예배를 하나답게 드리겠습니다! 하면서부터 충현교회 예배는 시작된다. 그리고 1시간 동안 한마디의 덧붙이는 말도 없이 마치 물 흐르듯이 힘입고 자연스럽고 장엄하게 진행된다. 우리는 이런 예배에 익숙해져서 잘 모르지만 타 교회 교인들이나 오랫동안 외국에서 생활하다 오신 성도들은 참으로 감격스러워 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이러한 예배의 경건한 분위기는 어느 날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은 아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우리의 열망들이 만들어 낸 결과이다. 매우 자연스러운 예배 진행이 사실은 수개월 전부터 준비해 온 결과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우리 교회에서도 그리 많지 않다.

우리 교회는 예배에 목숨을 건 교회이다. 이는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기 전 교회가 집중하여 매우 많은 관심과 온 힘을 쏟는다는 것이다. 우리 교회의 목표 가운데 첫 번째가 <신령한 예배>임을 보아도 알 수 있을 것이다. 우리 교회처럼 예배에 온 신경과 관심을 쓰는 교회도 없을 것이다. 우리 교회의 예배는 위임 목사님이 주일 설교문을 2, 3개월 전에 내 놓으면서 부터 이미 시작된다. 이에 따라 예배의식의 부활의 의의와 목적은(우리 교회는 교목문도 별도로 내는 설교에 맞추어 작성한다)와 회중 찬송과 찬양대의 찬양곡이 선정된다. 그리고 사회자, 대표 기도자, 헌금 독창자 등이 1개월 전에 공지되어 1개월 후의 예배를 위한 준비에 들어간다.

사회자는 예배의 모든 흐름을 잘 이해하고 신령한 분위기 가운데 예배가 드리도록 많은 준비를 한다. 모든 순서를 되짚어 보는 것은 물론이고 순서 순서를 일일이 직접 해보며 준비한다. 특히 회중 찬송을 수십회 이상 혼자서 준비한다. 회중 찬송할 때 인도자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실감하는 사람들은 그 이유를 잘 알 것이다. 오늘날 예배 갱신을 외치는 사람들의 큰 주장 중 하나는 모든 교인이 예배에 참여하라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정작 회중 찬송을 별로 모르고는 하지 않는다. 그러나 온 회중이 마음과 정성을 묶어서 하나로 찬양할 때 참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쁜 찬양이 될 것이다. 이는 찬양대의 찬양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사회자의 찬양 준비는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부목사들의 주일 설교는 모두 위임목사의 주일 설교에 맞추어 있다. 사실 주일 예배는 전 교인 한 자리에 모여 위임목사의 설교를 듣는 것이다. 그러나 현대 교회는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의 제약과 시간적 격차와 다양한 봉사 영역 때문에 주일에 예배를 보며 2회 이상 드리는 교회가 대부분이다. 최근 인원에 상관없이, 그러다 보니 위임목사의 설교를 못 듣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약점을 극복해야 하는데 이를 우리는 동일한 본분, 가능하면 동일한 제복으로 하게 된다.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하지만 주일 예배 설교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이 옳은 것이다.

또한 사회자, 설교자, 대표 기도자는 예배 전 30분 전에 예배준비실에 모여 예배를 위해 기도하고 예배 15분 전에 등단한다. 이처럼 예배 대표 기도자, 찬양대, 헌금 독창자 등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예배의 모든 것들을 준비한다. 이런 예배의 분위기에 익숙한 우리 교인들에게서 왜 조그마한 실수가 있으면 금방 모두가 알게 된다.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 진행하면 당황에 드러나고 만다.

예배나 집회로 모이는 많은 교회는 온종일 예배 준비와 확인을 위해 예배 전까지 긴장하게 확인에 확인을 거듭하며 준비한다. 차량관리에서부터 강대상 위에 물 한잔까지, 심지어 예배나 기도시에 사용하는 용어 하나까지, 핸드폰의 소리까지, 이런 어이없는 정열기림까지, 주보 한장까지 우리는 모든 것을 준비하고 점검한다. 일반적으로 주보에는 보통 광고와 공지사항을 넣는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오래 전에 이것을 신지 않고 잊고 심지어 한 주간에 대한 순서(주일, 주일 저녁, 수요일, 금요일, 새벽기도회)등도 그날 예배만을 위한 순서 외에는 다 빼고 그날의 주보는 그날 순서만 넣는 것으로 바꾸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 수요일, 1, 2부, 금요일회와 순서지가 따로 만들어 진다. 이 모든 것이 예배에 집중하기 위한 것이다. 주보에 대해서 아직도 불평을 하는 사람은 주보를 바꾼 이유를 잘 알아야 할 것이다. 주보도 우리의 권리함과 의무를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고 예배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말이다.

우리 교회는 소위 유모차질이 없다. 이는 유모차질은 유모차 외의 사람들에게는 의미가 있지만 유모차질에게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대신 탁아부를 운영하여 모든 예배 시간에 유아와 함께 온 사람들은 탁아부에 유아를 맡기

고 예배를 드리도록 하고 있다. 예배 시간 중에는 탁아부 교사들이 자신의 자녀를 돌보는 심정으로 유아들을 잘 맡아 돌보고 교육도 하고 있다. 이는 2, 30대의 젊은 부모들은 자녀들이 자라서 혼자 초등학교에 가기 까지 5, 6년 동안 주일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없는 현실에서 참으로 해방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예배할 수 있는 아주 귀한 제도인 것이다.

더구나 매 홀수일 첫째 주일에 실시되는 성찬예배에는 온 교회가 성찬 예배에 집중한다. 매 주일 빠짐없이 모이는 교구 모임 인도도, 교회학교의 사회도, 각종 행사도 성찬 주일에는 우선 순위에서 뒤로 처지고 목사님, 장로님들은 전원 1-5 부 예배의 성찬에 수종드는 일에 참여한다. 성례부 담당 장로, 권사, 집사들은 토요일에 나와 성찬에 사용할 포도주와 떡에 대한 마무리 준비를 한다. 시중에서 맛있는 떡으로 사서 해도 되지만 우리는 구태여 누룩 없는 떡을 만들고 지난 해 가을에 며칠씩 힘써서 짜 놓은 포도주만을 사용한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우리는 예배의 중요성과 그 의미를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면서 예배하는 존재로 지으셨다. 그래서 예배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취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태도이다. 이처럼 예배를 하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하시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도와 선교, 교회에서 행해지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이 모두 이 신령한 예배의 기와 위에서 행해져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예배의 갱신과 예배의 회복에 이르기 하고 있다. 진정한 갱신과 회복은 무엇인가? 예배의 본질로 되돌아가는 일이다. 예배의 원래의 정신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유익과 즐거움, 만족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며 그 앞에 모든 것을 내려 놓고 무릎 꿇고 절하는 것이 예배이다. 마치 동방의 박사가 어린 아기 예수님 앞에 꿇어 경배한 것과 같이, 그것은 의회를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심정이 있어야 참된 예배, 신령한 예배가 가능하다. 그래서 예배는 그리스도의 구속적인 죽음으로 부활하심과 승천하셔서 오늘날 통치하시는 그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드릴 수 없다. 그래서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이 준비해야 할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구속적 죽음으로 부활하심에 대한 깊은 인식과 묵상인 것이다. 그리고 항상 주님의 임재하심, 살아 계심, 그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의식하고 있어야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준비를 철저히 하게 한들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 안에 굴복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인간의 공화한 종교적인 치장밖에 안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준비에 온 힘을 쏟는 것은 우리 인간은 연약하고 제한된 피조물임에 따라 우리의 심령을 고양시키는 찬양, 마음을 평온하게 하는 교회당의 분위기, 잘 준비된 예배 순서 등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많은 기여를 하며 예배 정신을 살리는데 큰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배 15분전에 예배하는 성도들이 나오기를 권하고 있다. 15분 전에 나와 독창자, 독주자, 중창자들이 잘 준비된 찬양을 드리는 <예배 전 찬양> 시간을 갖고 있다. 15분 전에 나와서 찬양에 동참하며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심, 통치하심을 묵상하며 마음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라는 것이다. 그라야만이 진정한 예배가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준비 없는 예배란 있을 수가 없다. 모두가 마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안에 감격할 때만이 우리가 지향하는 <신령한 예배>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랬을 때 참으로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주께서 주시는 영적 평안과 만족,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감과 진정한 헌신의 결단을 통한 주님께만 영광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예배위원회에서는 매 주일 예배를 준비하고 모든 예배가 끝난 후 그날의 예배를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잘못한 부분을 회개하고 또 다음 주일 예배 준비를 시작한다. 마틴루터는 성도들도 예배가 끝나고 돌아오면서 이제 다음 주일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고 묵상하는 일주일을 보냈으면 좋겠다. <주간 충현>에는 위임 목사님의 다음 주일 설교 전문이 게재된다. 또 다음 주일의 예배 담당자, 회중 찬송총합도 실린다. 매주 금요일 구역예배의 공부도 다음 주일 설교본문으로 작성되어 있다. 이런 것은 전 교인이 주일 예배를 준비해 하기 위함이다. 이처럼 주일 예배를 준비하며 한 주일을 살아 보자. 그러면 우리의 내면에서 어서 주일이 와서 교회에 가서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고 싶은 심정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와 우리들의 모든 준비가 허다하게 되어서 주일 교회가 그렇게 간절하게 바라고 바라는 신령한 예배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처럼 모일 때마다 신령한 예배를 드림으로써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닫고 이러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전하기 위하여 참된 마음으로 전도와 선교의 장으로 달려 나갈 수 있게 될 것이다.

우리는 2004년도 새해를 신년 예배로 시작했다. 또 몇 주는 성찬 개례로 드러진다. 신년 예배의 설교에서와 신년 예배로 우리들은 믿음의 길, 좁은 길인 십자가의 길로 나아갈 때 이것은 결국 은혜의 길, 진리의 길임을 확인하게 될 것이며 이것은 결국 우리를 영생의 길, 영광의 길인 <그 길, THE WAY>로 인도할 것이다. 2004년도에는 늘 신령한 예배를 위하여 준비하며, 좌우를 돌보지 않고 오로지 앞에 놓여 있는 <그 길>만을 바라보고 힘 있게 나아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새해의 기원으로 드린다.

★ 지난 주 도착한 선교팀

기 간	선교지	팀	팀 장
12월 22일(월)~12월 30일(화)	D	16교구 3지역	이상범
12월 22일(월)~12월 31일(수)	D	8교구 3지역	안노수
12월 22일(월)~12월 31일(수)	D	7교구 5지역	전계석

★ 현재 사역 중인 선교팀

기 간	선교지	팀	팀 장
12월 30일(화)~1월 10일(토)	D	1교구 10지역	구원섭

★ 다음 주에 출발하는 선교팀

기 간	선교지	팀	팀 장
1월 5일(월)~1월 13일(화)	D	대학부	이실희

*선교위원회의 방침으로 인하여 국가명은 밝히지 않습니다

울어요. 저분이 울어요

김 문 선 (안수집사, 2교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절히 기대하며 불가리아로 향했는데, 역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선교의 중요성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틀간 이동하던 우리 일행은 작은 마을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낯선 외국인인 우리를 보고 모여들었고, 우리는 마을 사람들에게 밝게 인사를 하고, 불가리아어로 '예수 사랑하심'이라는 찬송을 불가리아로 불렀습니다. 그때 찬송을 듣던 마을 사람들 가운데 '레토키'라는 여인이 복부 수술을 앞두고 있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하였고, 우리는 그 여인을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팀원 중에 한 사람은 그 여인을 불쌍히 여겨 안타까운 마음으로 벽을 붙잡고 통곡했는데, 그 모습을 본 많은 사람들이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우리 팀원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고 강력했는지 그렇게 벽을 붙잡고 울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였고, 이후 우리에게 마음을 활짝 열었습니다. 선교지 현장에서 영혼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뜨겁게 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우리는 '차고'라는 작은 마을에서 흠뻑 젖은 전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한 팀원이 길 건너편 작은 도살장에서 외쳤습니다. "울어요. 저분이 울어요." 서둘러 그곳으로 가보니 작은 도살장에 50대 중반의 남자가 한 손에 전도지를 들고 무릎을 꿇고 흐느꼈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낯선 여자에게 전도지를 받은 것밖에 없는데 왜 그가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알고 보니 그 사람은 이미 교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들이 해야 하는 전도를 우리가 멀리에서 와서 대신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과 감사하는 마음 때문에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그 눈물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고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비록 한 사람의 눈물이었지만, 우리는 그 눈물 안에서 복음을 에타게 기 다리는 불가리아의 수 많은 영혼들을 볼 수 있었고, 더욱 열심을 내어 선교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불가리아! 끝없이 펼쳐지는 풍요로운 농경지, 양떼와 목자, 붉은 기와의 넓은 전원주택, 그러나 영적으로로는 아직도 황무지와 같은 그 곳! 이런 선교를 통해서 저희들은 영적 어두움이 무 겁게 갈라져 있는 그들의 삶, 신앙의 힘을 잃어가는 그들에게 큰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왜냐 하면 그 어두움은 주님의 빛으로 밝게 빛나게 될 것이며, 그들의 무거운 짐은 주님이 맡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빛이 찬란히 비추어는 불가리아가 되길 기도합니다.

주님이 시작하신 구원의 역사

이 선 만 (집사, 11교구)

첫 선교지역인 스리랑카 마말레의 이른 아침, 주님께서는 바빠 나를 깨우셨다. 문득 눈을 뜨니 창 밖으로 알 수 없는 타 종교의 기도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시가지 쪽에서 들려왔다. 나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밖에 없었다. '자신 나는 전도지역을 담당할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선교에 대한 열정도 없고, 기도도 많이 부족합니다.' 내 얼굴은 온통 회색의 눈물로 가득했다. 성령님은 즉시 나를 깨우쳐 주시고 오직 감사함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할 내 길을 인도해 주셨다.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내 마음은 한없이 평온했다. 캔디에서 2시간 정도 떨어진 우레카도 보트나 르에서는 두 가지 상반된 일이 일어났다. 그 마을 한 가운데에는 사원이 있었고 불교도가 많아 전 도가 쉽지 않았다. 그들은 전도지 반기를 거부하였다. 어떤 한 남자는 우리 차량에 다가가 전도지 를 조각조각 찢어 길에 내동댕이쳤다. 날씨가 지 몹시 더워 우리는 전도할 의욕조차 수그러 들었 다. 한 집사님이 그래도 전도를 해야 한다고 나를 마을 안으로 밀면서 들어갔다. 그곳에서 우리는 시빌 그이라는 사람을 우연히 만났다. 그는 그 마을의 유일한 크리스천이었다. 우리는 그의 집 에서 그의 가족과 친척을 소개받으며 뜨거운 차까지 대접받았다. 그는 북쪽 지역인 아누라두푸라 인근에 크리스천들이 많이 있다며, 그곳을 방문해 달라고 부탁 하였다. 스리랑카에서의 마지막 밤 기도회 시간에 현지 안배인 두사람이 자기 언어로 대표 기도를 했다. 기도 후 뒤라고 기도했는 지 물어보자, 그는 스리랑카에 예수님을 믿는이가 많이지고 교회도 많이 생기기를 기도했다고 말 했다. 우리는 열한 간의 선교기간을 보내며 스리랑카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보았고 복음으로 하나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내 마음은 지금도 그곳에 가 있고, 그들을 향한 기도가 내 기도제목이 되었다.

몽골에도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나 라 (몽골팀 회장, 동역)



저는 1986년 울란바타르에 있는 몽골과 대학 의학과에 입학해서 6년 동안 의학을 공부한 후 내과의사가 되었습니다. 1982년 20살의 나이로 남편 자가와 결혼하였고 딸 2명이 있습니다. 1997년 5월 몽골에서 의료연수차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3개월 비자를 받고 왔지만 몽골로 귀국하지 않고 경기도 과 주에서 직장을 얻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몽골에서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천원교회에는 처음으로 친구의 전도를 통해 나오게 되었습니다. 처음 내를 때는 둘째 딸 가영이가 아파서 기도하면 나을 수 있다는 생각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처음 교회 나오는 날 마음이 감동되어서 계속해서 교회에 빠지지 않고 나왔습니다. 천원교회 외선부에서 설교를 통해 예수님과 성경을 더 알게 되었고 믿음도 생겼습니다. 1999년 5월에 한국에는 남편과 딸들도 천원교회에 함께 다녔습니다. 가족과 함께 교회에 나오며 힘들 때마다 가족들과 함께 집에서 기도하였습니다. 특히 한 주마다 매 딸들이 많이 아파서 교회에 나와서 기도를 많이하였습니다.몽골에서는 예수님을 몰랐지만 예수님이 진정 나의 구주인 것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2001년 5월부터 천원교회 외선부 몽골팀에서 동역을 맡게 되었습니다. 주일마다 설교를 통역하고 전도사님과 함께 심방하면서 저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리고 믿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울란바타르에는 몽골의 수도인데도 게가 한국에 오기 전까지 교회 가 거의 없었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지금은 울란바타르에 교회가 조금 생겼지만 몽골에는 교회가 없는 도시도 많고 예수님을 한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2년 전부터 몽골팀 전도사님처럼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이도 많고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많이 있어서 고민하고 걱정하였지만 하나님께 저를 사용해 달라고 기도 많이 했습니다.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고 좋지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설교하고 심방하는 교회 일을 하는 것이 정말 좋습니다. 그러나 전도지역을 통해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밤에 산에서 기도 하였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하고 간절히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저는 평생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많은 몽골사람들을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았지만 예수님을 모르는 많은 몽골사람은 절에 가고 부처님을 섬깁니다. 우상에게 전하는 많은 몽골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저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신 것이라 믿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로라"(고전 9:16)

이제 저는 하나님이라 가라고 하는 곳에 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아직은 구체적인 어떤 일을 해야할지 모르지만 신학을 하면서 하나 하나 계획을 세우고 가고 있습니다.

아직 믿음도 약하고 모든 게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저를 일꾼으로 사용하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 이 단어는 내 인생을 바꾼 가장 큰 계기가 되었다. 예수님을 모르면 그 시절 십자가의 의미도 모른 채 일 속 속에서 지루함과 답답함을 느꼈던 나는 친구의 인도를 받아 출현교회에 나와 처음으로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나를 위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말의 의미를 깨닫는 데에는 아주 많은 시간이 필요했고 그 의미를 알고난 후에는 나의 생각과 인생과 가치관의 모든 부분에 변화가 생기게 되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담으로부터 죄를 유전받아 지금의 우리도 죄인이 되었다. 그로 인해 죽으면 지옥으로 가야했으나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끊어버린 그 불쌍한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을 절대 의지해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받았으나 어떤 사람도 율법을 완전히 지켜낼 수 없었으므로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살리시고자 처음 사바부터 구원, 즉 생명을 살리는 구원인 동시에 영혼을 살리는 구원을 계획하셨다. 그 계획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절정을 맞는다. 어린 양의 깨끗하고 흠없는 피로써만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히 깨끗하게 하실 보혈의 은혜를 주신 것이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던 그 때의 감동을, 그 은혜를 평생 잊을 수 없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사역, 십자가에서의 죽음... 이것이 사람의 인생 전체를 바꾸는 위대한 능력인 것이다. 또한 십자가는 단순히 구원하심의 한 가지 의미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처럼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을 필요로 한다. 세상 속에서 내가 자야 하는 십자가, 그것은 무엇인가? 최근까지도 나는 나의 십자가에 대해 단순히 내가 당하는 고통과 아픔이 나의 십자가라 생각했었다. 하지만 나로 인해 돌아가신 예수님을

‘십자가’ 위해, 그가 기뻐하실 나의 십자가를 생각해보니 이제 어느 정도는 알 것 같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며 찬양하고 하

는 마음을 내게 주셨다.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리며 예수를 위해 행하는 모든 일 중 반개 되는 고통까지도 내가 지게 될, 내가 저야할 십자가가 되는 것이다. 나는 성약을 전공한다. 이 전공을 통해 하나님과 더욱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만 할 수 있기를 원한다. 어제 기도하며 느꼈다. '진정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는가? 그를 위해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첫째 나를 부인하는 것이다. 남들 앞에 서서, 노래하는 나의 모습 속에는 언제나 고백할 소지가 있다. 이를 위해 항상 기도하며 한 순간도 남들 앞에 나를 드러내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없애야 한다. 성령님께서 주관하시라 한다. 둘째,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십자가는 죄인들이 매여 달린 형틀이다. 나 자신이 진정 죄인이라면 당연히, 그것도 아주 감사히 십자가를 짊어져야 하지 않을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수고했다고 칭찬하시는 그 날까지 하, 한 순간도 십자가를 놓지 말아야겠다. 마지막으로 예수를 향한 소망을 품으며 진도와 선교에 더욱 힘써야 한다. 세상에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악인의 죽음도 기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조차 들어보지 못한 영혼들의 죽음을 기뻐하실까? 어렵도 없다. 그렇다면 나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여기 있다'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해야겠다.

십자가는 나의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소망이 된다. 영원토록 찬양하며 증거해야 할 제물이 된다. 십자가도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이제 곧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주께서 기뻐하시는 모습, 십자가를 지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증거 준비를 해야겠다. 이런 기회를 통해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 되새겨 볼 기회를 주신 주님께 감사함을 드린다.

정남수 (장학생)

십자가 아래로 피하리라



"땅에 깔고도 가장 지체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써 먹을 것을 여름에 예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써 집을 바위 위에 짓는 새와와..." (잠 30:24-26)

이 중에서 '새'는 바위너구리를 의미한다. 돌집이가 약 50센티미터밖에 되지 않는 바위너구리는 약하고 힘이 많은 동물이다. 하지만 스스로를 잘 보호할 수 있도록 '바위' 사이에 집을 지을 만큼 지혜가 많은 동물이기도 하다. 모든 연약하지만 천연의 견고한 요새를 도둑처럼 삼을 줄 아는 지혜가 있는 것이다. 경계심이 강하고 주로 낮에 활동하면서 식물의 뿌리나 줄기를 먹고 사는 바위너구리는 여우나 늑대나 추격해 오면, 미리 준비해 놓거나 아니면 주변에 있는 바위 밑

으로 쏙 숨어 버린다. 그리하여 안전을 보장받는다. 성경은 이런 바위너구리를 가리키며, 우리에게 지혜를 배우라 말한다.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바위너구리에게서 배워야 할 지혜가 어떤 것인지 금방 알 수 있다.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자. 우리 모두는 바위너구리처럼 연약한 존재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대적하는 적들이 많고, 그 적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하다. 가장 큰 적은 누구일까? 우리 자신이다. 우리의 자아(自我)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뜻, 내 고집, 내 의지대로 하려는 자아가 늘 우리를 가로막아 하나님을 순종하지 못하게 한다. 우리의 옛 자아는 날마다 우리 안에서 싸움을 걸어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는 선한 의지를 꺾고 우리를 죄 가운데로 끌고 가는 강력한 적이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롬 7:22,23). 두 번째 적은 우리를 행복하고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는 것처럼 호감을 떨치만 사실을 따져보면 우리의 영혼을 해치는 것들로 가득하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나 다 아버지께로 좇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에 좇아온 것이라" (요일 2:16).

이에 비하여 우리 자신은 얼마나 약하고 연약한지! 우리 자신의 의지와 고집과 뜻에 너무나 쉽게 굴복하고 마는 우리가 아닌가! 마귀의 작은 유혹에도 단번에 넘어가버리는 미련한 우리가 아닌가! 이 세상의 즐거움을 끝없는 절로라도 보고 맛보려는 탐욕스러운 우리가 아닌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믿고 살기로 여러 번 다짐하고 작정하며 노력해도 어느새 보면 그런 의욕조차 다 사라지고 절제기만 남아 있는 우리가 아닌가! 약한 일을 배우지 않는 정말 쉬워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 배우기는 너무나 어려운 우리가 아닌가! 마치 우리는 잔인한 이리 떼에 쫓기고 있는 지친 바위너구리와 같다.

그럼으로 바위 너구리가 피난처를 필요로 하듯 우리에게 안전한 피난처가 필요하다. 약하고 부패한 마음으로부터,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고 지켜 줄 수 있는 분이 필요하다. 그 분은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이다. 기꺼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시다. "여호와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피난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흉악에서 구원하셨도다" (삼하 22:2,3).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요 10:28).

그럼으로 우리의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하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자. 이것이 우리의 영혼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길이다. 오직 이것만이 참 생명의 길이다. 새해가 되면 우리는 많은 결심을 하고 노력을 많이 하게 된다. 신앙에 있어서도 새로운 결심을 하고 이전보다 몇 배 더 성실하게 사명을 한다. 그러나 단순히 우리의 결심과 노력으로는 우리의 영혼을 원수들로부터 지켜낼 수 없다. 우리의 결심과 노력이 불필요하다는 말이 아니다. 우리의 결심과 노력 자체는 아무런 효력도 없으며, 오히려 우리를 더 지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의 피난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날개 아래 날마다 거하라. 그 분의 인도와 돌보임을 겸손히 받아야 한다. "백성들이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돌리라 하나님의 구원의 피난처시도다" (시 62:8). 이 말씀대로 해야 한다. 오직 거기에만 참된 쉼과 안전이 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로 오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쉬게 될리니" (마 11:28,29). 2004년에도 배마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피하여 사는 우리가 되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로 이끌고 달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자.

(편진국)

♡ 교구 안에서 만난 예수님 ♡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삶

1999년 1월 저는 새롭게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전에도 하나님께서 주변인들을 통해서 저를 부르셨는데 저는 번번히 주님의 초청에 기절을 했죠. 어린 딸이 “엄마 주님을 믿으세요. 안 그러면 지옥에 간대요.” 친구가 “성미야 널 위해 기도하고 있다. 같이 교회가요?” 그랬을 때의 대답은 “나를 잘 믿어”였습니다. 아렸던 제가 여동생의 생명이 위급한 지경에 이르자 “하나님, 제 동생을 살려주신다면 꼭 교회에 나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그때부터 신앙의 여정이 시작되었죠. 하지만 위급한 상황이 지나자 또 망만해졌습니다. 2년간은 교회 마당만 밟고 지나가는 잠자는 성도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잘 알사동으로 이사하게 하시면서 신앙에도 전환점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우선 예배 시간에 졸지 않게 되었고 구역예배를 통해 말씀에 점차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11월 불가리아로 단기선교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어떻게 하면 선교를 안 할수 있을까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도무지 자신이 없었고 제 자신이 자격 미달이란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안 간다는 말은 차마 못하고 애들 봐줄 사람이 없다는 평판만 되돌아 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애 봐줄 사람이 나타나서 선교를 안 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주님께 두손 두발 다 들고 항복하는 심정으로 선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또한 성경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 말씀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깨달은 말씀은 끝보다 더 많았습니다. 그 말씀은 저의 행동을 변화시켜 주었습니다. 기도모임에 합류하게 해주셔서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도 만났고 교사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도 주셨습니다. 시작은 미약했으나 날이 갈수록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닫고 말씀으로 마음이 감동되어 예배 시간마다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교사로 봉사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혼을 위한 기도를 하면서 변화되는 학생의 모습을 보게 되었고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2003년은 특별한 해입니다. 말씀으로 귀든져 새롭게 깨달은 해이기 때문입니다. 저를 죄의 삶에서 깨어내 새 삶으로 옮겨주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만들어 주신 주님의 능력을 보면 그저 놀라지만 합니다. 예수를 필박하던 저를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새롭게 만들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윤성의 (집사, 7교구)

인도 단기선교를 마치고

인도의 듀레 지역은 그동안 선교팀이 가 보지 않은 지역이고, 기독교인은 거의 없는 지역이다. 그곳에서의 사역은 주로 노방전도였지만 축조전도도 함께 이루어졌고, 작은 분교에서 어린이들을 모아 어린이 선교도 했다. 전도지를 귀중하게 받아 가는 그들의 모습에서 앞으로 이 지역에 계속하여 복음이 들어온다면 분명이 이방의 신들이 몰라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리라는 믿음이 생겼다.

그들의 순진한 눈동자에서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을 볼 수 있었다. 경제적으로는 가난하게 살고 있지만 분명 그들의 마음에는 믿음을 영접할 수 있는 여유가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우리는 그들에게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고 기도했다. 특히 마지막 날에 전도지를 다 나누어 주고 없는 상태에서 10분 이상을 기다리며 전도지를 달라고 하던 중년의 남자가 기억난다. 여기저기 찾아서 하나 남은 전도지를 전해 줄 때 그 사람의 애절했던 눈빛을 잊을 수 없다. 그렇게 하여 주님의 복음이 씨 뿌려지고 열매 맺어진다 것을 새삼 느끼며 주님을 영접하고 만나할 수 있도록 기도했다.

이방의 신으로 가득 찬 인도지만 그럴수록 주님의 복음이 계속하여 들어가기 된다고 생각 되었다. 어려운 곳일수록 선교팀이 많은 기도와 준비를 통하여 선교의 사명을 완수해야 할 것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과 기도였다. 성령과 기도로 무장하고 나가는 것 뿐 인간의 지식과 경험은 그렇게 필요한 것은 아니었다. 앞으로도 선교팀의 준비 과정은 기도와 찬송으로 성령 충만하는 것이고 그 성령의 힘으로 십자가 군병으로서 승리해야 할 것이다.

인도 듀레 지역에서 우리가 전도하며 경험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서 훗날에 많은 열매 맺기를 기도한다. 그래서 그곳에서도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고 찬송이 하늘 높이 메아리 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한다.

(1교구 9지역 인도 단기선교팀)

선교, 말씀에 순종하여

백 애 순 (5교구 2지역 사랑가람)

선교는 주님께서 특별히 역사하시는 일이고 인간은 도구로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따르기만하면 된다는 것을 생각하면 정말 놀라울 따름이다. 선교기간 중에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한 것이 마음에 걸리고, 주님께서 보시기에 미흡한 부분도 많았지만, 개인적으로 한정된 시간에 최선을 다 했다고 생각한다.

사역 초반에는 우리와 다른 현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약간의 두려움도 느꼈다. 하지만 호의적인 그들의 반응을 보고 그들을 대하는 데 자신감이 생겼다. 그들은 집안마다 불상과 불화가 있었지만 우리는 그런 것들과 관계없이 전도지를 전했다. 거부하는 사람도 몇몇 있었지만 우리에게 음료 등을 대접하는 이들도 있었다. 그리고 준비해 간 프로그램을 경청하는 어린이들과 기도할 때 두손을 모은 모습들은 내 마음을 통쾌하게 했다. 이런 때는 비를 맞으며 우리들이 전하는 내용을 듣는 사람들이 있었고, 열집 아이가 전도지의 내용이 궁극하여 찾아와 읽던 모습들도 기억난다.

사역 기간에 음식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건강을 돌보아주신 주님께 감사하다. 선교 준비기간 중, 언어 교육도 중요하지만 팀원의 단합도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선교는 영적인 싸움이기에도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고 간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깨달았다. 그리고 현지인들을 접하면서 그들의 부도덕한 마음을 보고 기도의 능력을 새삼 느꼈다. 단기 선교를 마치고 생각하니 나의 부족함이 많았던 것 같다. 그것을 통해 주님 앞에서 나의 신앙을 돌아보게 되었다.

♫ 다음 주일 찬송

204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이 찬송의 작사자 하니 크로스비(Fanny Crosby, 1820-1915) 여사는 생후 6주만에 장님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영적 진리와 경험을 8천여 곡이나 되는 많은 찬송가와 성가에 담아 표현하였다. 실로 놀라운 일이다. 그녀는 어떤 특별한 주제에 대한 새로운 찬송을 갖고 싶어 심방하는 목회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찬송가의 주제를 얻었다. 그녀는 15세가 되어 뉴욕시에 있는 맹인학교에 들어가 12년을 학생으로 있었고, 학교를 졸업하고는 그 학교의 교사로 오랫동안 일했다. 그녀는 95세가 지 장수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끝까지 헌신하였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귀감이 된다.

어느 날 그녀와 같은 감리교회에 다니던 아마추어 작곡가인 조셉 뎀 여사가 찾아와 피아노에 앉아 이 곡의 멜로디를 연주하고는 가사를 의뢰하였는데, 이 멜로디를 들은 크로스비 여사는 주저하지 않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하고 가사를 읊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이렇게 하여 중생의 기쁨을 노래하는 이 찬송가가 탄생되었다.

- 1절 :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되다
2절 :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의 사람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를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부르되다
3절 : 주 안에 기쁨 누리므로 마음의 물결이 진진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되다
후렴 :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되야 아멘

(찬양위원회)

세 · 가 · 족 · 을 · 한 · 영 · 합 · 니 · 다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1	박경희	1 장년부 김희자(2)		9	김기차	13 청년2부 최영자(6)		17	정대훈	19 대학부 추민경(8)	
2	은희정	1 장년부 김희자(2)		10	김경태	13 장년1부 송귀남(13)		18	박수진	19 대학부	
3	손은호	1 장년2부		11	김성재	13 장년1부 송귀남(13)		19	백수현	19 청년1부 안완주(5)	
4	김재현	4 장년1부		12	박준범	17 소양부 민병인(3)		20	김진성	19 청년1부	
5	문신진	4 청년2부 이웅승(4)		13	손진경	17 소양부 민병인(3)		21	덕소	19 외선부 신금순(10)	
6	김달환	4 장년부 이진경(4)		14	문은영	19 고등부 이영숙(3)		22	반호	19 외선부 조영자(3)	
7	박옥식	9 장년1부 이영인(9)		15	나은림	19 대학부 김용갑(19)		23	이갑길	2 장년2부 이갑길(2)	
8	이상은	13 청년2부 최영자(6)		16	박경태	19 대학부		24	마효	19 외선부 조영자(3)	

※ 찬양위원회 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아이를 통하여 배우는 주의 사랑

오수민 (집사, 유치부 학부모)



“주님이 맡기신 귀한 예수님의 자녀, 제회가 주의 말씀과 기도로 양육될 수 있도록 지켜 주세요.” 막내 아이 제회는 매일 아침 가정 예배를 통해 가족들의 기도를 받으며 예수님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제회는 매주 토요일 오후가 되면 스쳐가듯 물어 봅니다. “엄마, 내일은 어디가? 주일이 다가왔다는 메시지를 던지는 데 합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주일이 기다려

지는 않습니다.

순수하게 믿음을 배우는 제회를 통해 저희 가족은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주일을 즐겨 기다리며 배운대로 의심없이 믿는 믿음, 왜 성경에서 어린 아이 같은 믿음을 가지라고 했는지 알 것 같습니다. 우리 가족은 제회의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느끼고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깨달아 가는 것은 주님은 우리의 가까운 곳에서 늘 함께 계시다는 것 입니다. 자녀를 통하여 당신의 사랑을 알려 주시길까지 하시는 주님, 늘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자녀를 통해 그 모습을 보여 주시고는 합니다.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을 원하시는 예수님! 그제 얼마, 아빠가 가라하면 가고, 먹으라 하면 먹고, 하라하면 그제 의심없이 행하고,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피곤하고, 지치면 품에 안겨 세상에서 가장 평안한 평안을 누리게 아이처럼, 지금도 주일을 맞으려고 곤히 잠들어 있는 아이의 얼굴을 보면서 오늘도 기도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예수님! 부모가 아이의 모든 것을 잘 알듯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예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오니 내 안에 거하시어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어린 아이들이 부모를 의심없이 따르듯 저희에게도 이 믿음을 허락하시어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따르게 하소서, 아멘!”

어디선가 죄를 짓고 있는 친구에게

안녕, 친구야. 갑자기 이런 말을 꺼내기는 조금 어색하지만,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 죄, 갑자기 이런 말을 꺼내니까 이상하지? 평소에도 생각하지 않던 생소한 일을 생각해보려니 너도 기분이 이상할 거야. 너무나도 생소하고 관심도 갖지 않았던 일이었을 텐데, 하지만 이 이야기는 나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야. 혹시 죄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는 것과는 다른 것이지 큰 차이가 없어. 중요한 것은 ‘죄’에 대해 제대로 알고 이해하는 것이니까. 죄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잘못’과 다른 거야. 잘못은 부주의면 되겠지만 죄는 씻을 수도 없는 불행에 격게 될 수 있어.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고 지옥에 떨어지게 되거든. 그렇다면 죄를 씻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고 있지? 길이 뉘우치는 것?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 그것만으로도 죄를 씻을 수 있을까? 그건 절대 아니야. 혹시 죄의 대가를 알고 있지? 죄의 대가는 죽음이야. 죽음은 절대대로 알고 있었지? 죽는 것을 행복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지. 그렇다면 구원을 받고 싶지 않니? 죽는 것이 싫지 않니? 두렵지 않니? 죽음과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지 않니? 그렇다면 예수님이 죄의 대가를 치루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복음을 들으려 교회로 오지 않을까?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그것을 가르치는 교회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곳이라면 어느 곳이라도 좋아. 구원의 희망을 가지고 교회로 나와 주겠니? 하나님께서는 누구나 죄의 길에서 빠져 나올 수 있다면 언제나 환영하시니까. 오 생각도, 간사해도, 실수곳에도,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받고 있더라도 우리 모두 죄가 없는 그 길로 나아가도록 약속하자. 우리 모두가 친구에서 우게 될 내일을 기다리며...

나의 친구 재영이가 (중등1부)

[복음의 위대한 역사를 사모하라]

또 하나의 열매 (막 9:28,29)

10명의 가나안 정탐군은 배매금과 절망감으로 아무런 생각이 없었다. 그들의 생각을 사로잡은 것은 ‘예수가 같은 우리를’이었다면 13:30. 어떤 사람은 10명의 가나안 정탐군이 예수가 골골레스에 빠졌다고 말한다. 정탐로 공판한다. 그런데, 많은 교사들의 모습을 볼 때 예수가 골골레스에 빠져 허둥대고 있음을 보게 된다. 교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기도 분명하고, 순결한 헌신도 뜨겁다. 그러나 교사는 스스로 보기에, 교회 전체가 보기에 별로 중요하지 않은 직분으로 인식되고 있다.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우선순위에 있어 항상 ‘뒤로’ 밀린다. 어느 교회의 개서판에 이렇게 써 있었다. ‘10부 교사 모집. 대상: 누구든지! 교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란 뜻인가? 교사는 아무나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일이란 뜻인가?’

교사의 집은 교회의 미래의 집을 결정한다. 교사의 모범은 학생들의 평생의 믿음을 결정한다. 교사의 열정은 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한다. 그 귀한 사역의 중심에 교사가 있다. 예수가 골골레스에 빠진 교사들에게 골골레스에서 헤어나와 탁월한 교사가 되기 위해 열정적으로 헌신하며 마음을 흘리는 것이 요구된다. 흔들림 없는 기초가 세워져야 한다. 그 기초는 영혼을 위한 간절한 기도이다. 십자가의 길을 걸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역을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친다. 특히 그에게는 영혼을 위한 뜨거운 기도가 있었다. 또한, 죽기까지 예수를 따랐던 스데반 역시 죽기 전에 무릎 꿇고 영혼을 위해 기도하였다. 그 모습을 생각해 보라. 그럴 때 바울을 준비시킨 주님께서 또 하나의 열매를 준비하신다. 그 열매를 기대하며 오늘도 기도의 십자가를 지자!

(영재목 사모 - 홍동3부 지도)

민음의 학교에서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사 30:18a)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애굽과의 어떠한 종류의 동맹이나 결속도 체결하지 말 것을 엄중히 명하셨습다(출 13:17, 신 17:16). 그 이유는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나라와 교섭함으로써 이스라엘이 물들지 않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의지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이제 앗수르에 이어 다시 애굽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화 있을진저 예역한 자들하여 그들이 계교를 배우나 나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였음으로 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여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니 바로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으니 죄에 죄를 더하도다” (사 30:1,2). 하나님은 유다가 하나님을 의뢰하기보다 애굽과 동맹을 맺고 그들을 의지한 사상을 책망하시고 이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셨습니다. 애굽 왕은 이스라엘을 도울 힘이고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고통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은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사 30:3). 이는 우리가 세상의 것을 너무 의지하며 살고 있을 때 해서는 말함이 아닌가요? 지금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며 살고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사 30:8).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요구하는 것은 듣기 싫어하는 자들입니다(사 30:9 참조). 또한 그들은 참 신지자들의 입을 막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이 선전자에게 이 르기를 선전하지 말라 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정한 것을 보이지 말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정로를 버리며 침정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기록하신 자로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도다” (사 30:10,11). 이는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 아닌가요?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참된 종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회한합니다. 그들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물질적인 축복을 말하는 자들만을 원하고 그들의 추구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주의 종들의 말을 듣기 싫어 합니다. 그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거추장스럽게 여겨집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많은 하지도 못하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그렇다면 진정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사 30:18).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되 기다리시나니. 여호와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정경은 공의의 한 방법이지요. 또 한 여호와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공의도, 심판도 모두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됩니다. “자손에 거하며 예루살렘에 거하는 백성이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않을 것이라 그와 너의 부끄러운 소리를 인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사 30:19).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원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창 3:22).

(권형민 기자)

모임

1. 정기 대회
일시: 7월(수) 수요2부 예배 후
장소: 당회실
2. 권사 헌신대회
일시: 7월(수) 수요2부 예배
장소: 본당
3. 안수집사회 월례회
일시: 오후 5:30
장소: 교육관 201호
4. 여배워협회 봉사자 교육
일시: 13월(삼) 18:00
장소: 감리회홀
5. 이모용전도회 월례회
일시: 오후 5:30
장소: 본당 112호
6. 경찰전도회 월례회
일시: 11월(다을) 주일 15:30
장소: 본당 112호

● ●

1. 임정숙 타고권사 오남현 성도의 장모
이경숙 집사의 모친, 17교구 셋배구역/
12월 21일 밤세, 12월 23일 장례
2. 이길모 성도 이정임 집사의 부친, 정중
현 집사의 장인, 7교구 성대2구역/ 12월
31일 밤세, 1월 2일 장례

경은

1. 정규수 군(장남군 성도, 박정순 집사의 아들, 부산진교회/ 19교구)과 이민정 양(이성재 씨, 김은희 권철의 딸, 큰부리교회/ 19교구)/ 9일(금) 14:00 갈릴리움
2. 김현택 군(김규국 씨, 이숙자 씨의 아들이며, 오정영 양선생님과 김시의 딸)

우리 교회는 예전 때부터 소수민족 여교인이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에
우리 교회의 목회적 첫 번째 전통이 놓고 있습니다. 예배시간에 온 교
회는 예배의 집중 대상이다. 그런데 예배시간에도 불교주의적 3부 사
상에서 벗어나고 있는 경향을 많이 관찰한다. 특별히 우리 자매 전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 대목 그처럼이다.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예배
를 위하여 2004년부터는 주일자매 예배시간 중 오임을 자제해 주
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주일 오에 4시간 30분까지 오임을 끝내고 4
45분까지는 본당에 오면 예배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자
매에서 주일 자매 장년층 오임을 하는 경우 사목국에 접수해서
선서를 제출하여 장년층 해방을 받을 수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
야 난당 되고도 자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 용 : 만나 지도법, 겨울교재 워크숍, 학생 지도법, 2004 반목회 전략

1부 예배: 09:00~10:00 2부 예배: 11:00~12:00 장소: 교육관 110호
영아부는 0세~만 2세의 아기가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예수님을 배우고 사랑을 나누며 신앙의 기초를 만드는 곳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매시간 변화되어가는 모습을 만나보세요.
*그동안 모르셨다면 지금 곧 가입하시고 함께 하세요

지난 해부터 시작한 부서울 한신애매를 2004년 부터는 매월 첫째 주일요일이 지난 수요일 애매 시에 드립니다. 새해를 맞으며 첫번때로 (고려지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한신애매가 1월 7일, 수요일 애매 시에 드리겠습니다. 특히 2004년부터는 비록 한신을 다짐하며 한신애매 시 한글시간을 앞당기기로 하였습니. 해당되는 사람들은 모두 참여하여 새해를 시작하는

1. 선발대상

① 본 교회 등록교인으로 2001년 12월 30일 이전 등록자

② 본 교회 교회학교에 재직중인 교·대·대학원·신학대학원 학생

③ 공매배와 교회학교 부서의 집회에 잘 참석하여 교회 각 부서에서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자

2. 신청기간: 2003년 12월 28일 ~ 2004년 1월 11일

3. 신청장소: 교육국

4. 문 의 : 교육국 ☎552-8200 교272 4731

전도위원회에서는 2003년도 하반기 회계감사를 실시합니다. 각 전도위원회에서는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감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간 : 2004년 1월 첫 주 ~ 2004년 2월 마지막 주

대상기간 : 2003년 7월~12월

감사장소 : 전도위원회(교육관 6층)

준비서류 : 시산표 2부(2003년 1월~12월), 금전출납부, 원장, 연수증철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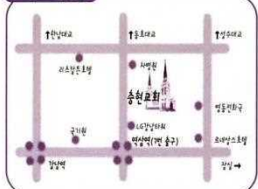
	5(월)	6(화)	7(수)	8(목)	9(금)	10(토)	11(주일)
설교자/기도자	김정수/김환기	장 훈/김전옥	이희식/이홍우	최종철/권영주	하종철/이상복	이종대/김정연	이태복/조옥자

예배 담임안내 (1/7~1/11)					
날짜	예배	예배 전 찬양	사 회 기 도	설 교	
1/7	수호 I		이종대	이근덕	세례를 주는 믿음(요 20:21) 여성기 목사
1/7	수호 II		정병민	노광원	돌이킬(창하 5:1-16) 정권호 목사
1/9	강요집회	특별찬양(아이들만 김용철/소르노도 김희연)	이희식		우리를 양육하시는 성령의 은사(딤후 1:24) 이태복 목사
1/11	주일 I		정충선	정태두	새로운 것들(딤후 2:11-5) 이희식 목사
1/11	주일 II	하나님은 피아를 뉘 외(소르노도 김소민/탈렐루야 찬양대 솔로리스트)	정권호	임부천	새로운 것들(딤후 2:11-5) 김익현 목사
1/11	수호	구주와 함께 나 죽으시니 외(소르노도 정정희/탈렐루야 찬양대 솔로리스트)	이영기	김종구	새로운 것들(딤후 2:11-5) 김성관 목사
1/11	주일 IV	칼의 끝은 우리 주께 외(바야올룬 김복희/탈렐루야 오케스트라)	하영진	김광남	새로운 것들(딤후 2:11-5) 김성관 목사
1/11	주일 V	오 신실하신 주 외(소르노도 김민학/배현 찬양대 솔로리스트)	김정수	안동현	새로운 것들(딤후 2:11-5) 양재복 목사
1/11	주일찬양		김영준	이정훈	오른 편에 단치리(딤후 2:11-6) 나광영 목사

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지는 신의
예배를 통하여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 2 김성관 위임국사에게 언제나 큰 믿
수라고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모든
신도의 십자가 복음임을 선포하는
의 정결한 통로가 되게 하소서.
- 3 제1, 2, 3교육위원회에 속한 모든
교인이 복음으로 하나되어, 선포되고
치는 모든 말씀에 예수그리스도의 삶
가 반영되나케 하소서.
- 4 126개 진회보다 영혼 구원의 열
이 많고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모든
회원들이 성령의 열매가 되게 하소서.
- 5 미전도 종족들에게 그리스도의 복
전하는 일에는 교회와 국가가 되게
고, CMCI(천천선전환부)를 포함하여
교육과 문화에 잘 진행되게 하소서.
- 6 복음을 위하여 지역화회를 섬기고
하는 빛과 소망이 되게 하소서.
- 7 각 위원회(예배, 찬양, 교육, 전도, 선
봉사, 국공, 인사, 기회, 행정, 재정, 관
사)가 위원회 및 교육훈련위원과 총
학회가 십자가 복음의 능력 있는 전
파하여 활발하게 움직이므로 교회와
사회를 하소서.

교회 오시는 길



예배 및 집회 안내

구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오전 7:00	본 당
	II 오전 9:00	본 당
	III 오전 11:00 (수화, 외국어 동시통역 제제)	본 당
	IV 오후 1:00(외국어 동시통역 제제)	본 당
	V 오후 3:00 (젊은이가 드리는 제제)	본 당
친양예배	오후 5:00	본 당
수요예배	I 오전 11:00 II 오후 7:00	본 당
금요집회	오후 7:00	본 당
새벽기도회	오전 5:00	본 당

기도원 안내

집 회	시 간	차 량
화요일	오전 11:00	오전 10:00 본당 앞 출발
금요일	오후 10:30	금요일 오후 본당 앞 출발

구분	시간	장 소	구분
영 아 부	I 오전 9:00 II 오전 10:50	교육관 110호	장년 2부
유 아 부	II 오전 10:50	교육관 110호	장년 1부
유 지 부	II 오전 10:50	제2교육관 1층	장년 3부
유 년 부	오전 10:30	교육관 307호	소 말 부
초 중 부	오전 10:30	교육관 407호	산학계정부
소 년 부	오전 10:30	교육관 507호	사 말 부
중 동 부	오전 9:00	교육관 301호	예화부
중 동 부	오전 9:00	교육관 401호	탁 아 부
중 동 부	오전 9:00	교육관 501호	세각목부
고 등 부	오전 9:30	제2교육관 4층	문화언어이집
대 학 부	토, 일 4:00	제2교육관 4층	국제생태환경연구소
청년 1부	오전 11:00	제2교육관 4층	관악자연생태리뷰

구분	시 간	장 소
1년 2부	오후12:20	교육관 501호
1년 1부	오후12:30	교육관 507호
2년 2부	오후12:30	교육관 407호
2년 3부	오후12:30	교육관 507호
말 부	오후12:15	강 령 리움
가계정부	오후12:15	교육관 204, 205호
말 부	오후11:00	복합관 1층 시청홀
가계정부	오후9:00~오후10:00	교육관 207호
말 부	오후9:00~오후2:00	교육관102호
가계정부	오후9:30	강령리움, 해너니움
이연이점	주간교육	교육관 107호
가계정부	주간교육	출현 빌딩 홀
이연이점	오후 11:00	이 면 홀

오전 11시에 드리는 주일 III부 예배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및 수화로,
오후 1시에 드리는 주일 IV부 예배는 스페인어, 중국어, 몽골어, 러시아어, 힌디어, 인도네시아어로 동시 통역됩니다.
Simultaneous translations in English, Chinese, Japanese and Sign Language are available at the Eleven O' clock Worship Service,
and Sri Lankan, Chinese, Mongolian, Russian, Hindi, and Indonesian are also available at the One O' clock Worship Service.

■ 시무장로

김의철	김호은	노영현	오익구	이병학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	서울대	충북대	한양대학교
열림집	김모용	이 훈	남선우	정승호
	한양대학교	한양대학교		한양대학교
김영길	문용구	조인재	김종구	최우진
	서울시청		한양대학교	
김진태	이창호	차진숙	김광남	이승철
	서울대학교	한양대학교	한양대학교	한양대학교
전종욱	임무천	최희룡	이강재	전종훈
	한양대학교	한양대학교	한양대학교	
전종렬	이정우	김단웅	황영일	한송규
	한양대학교	한양대학교		
김영수	김완기	원홍철	이형수	안동현
한양대학교	한양대학교			
김희정	김구형	최유덕	이계인	박익환
한양대학교	한양대학교			
이대식	정재두	박종구	권명호	조충현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배준식	김영달	이성호	박찬선	최희정
한양대학교	한양대학교	한양대학교	한양대학교	
노영현	박철구	정정길	신상수	고재승
	한양대학교		한양대학교	
김철현	김영은	이달호	장철환	김승준
	한양대학교			
한정수	유석민	장성현	안석현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한양대학교	

■ 위임목사 김성관

부독사			
이대현	정현민	박기근	여성기
소독부	조국희	배대부	조국기
이종철	김영훈	여국근	김요성
12월 12일	12월 12일	12월 12일	12월 12일
방준열	나광영	정지호	김용덕
12월 12일	12월 12일	12월 12일	12월 12일
위건만	김익찬	김정수	장 훈
12월 12일	12월 12일	12월 12일	12월 12일
이희기	최홍철	홍철원	한치원
12월 12일	12월 12일	12월 12일	12월 12일
정승진	양용홍	이성진	유근호
12월 12일	12월 12일	12월 12일	12월 12일
이재명	이경준	이성수	김준호
12월 12일	12월 12일	12월 12일	12월 12일
유운열			
12월 12일			
여전도사			
정연희	신동주	윤윤진	한경준
12월 12일	12월 12일	12월 12일	12월 12일
홍순애	이우주	김갑자	안혜분
12월 12일	12월 12일	12월 12일	12월 12일
김주초	장덕필	장혜구	최보민
12월 12일	12월 12일	12월 12일	12월 12일
김은수	김장자	이수경	김정희
12월 12일	12월 12일	12월 12일	12월 12일
이복순			
12월 12일			

■ 전영감독 강임규

■ 전영독자자 김소연

■ 다지서신 각기원 (수신 하위)

■ 전영지휘자 서문성